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南北韓比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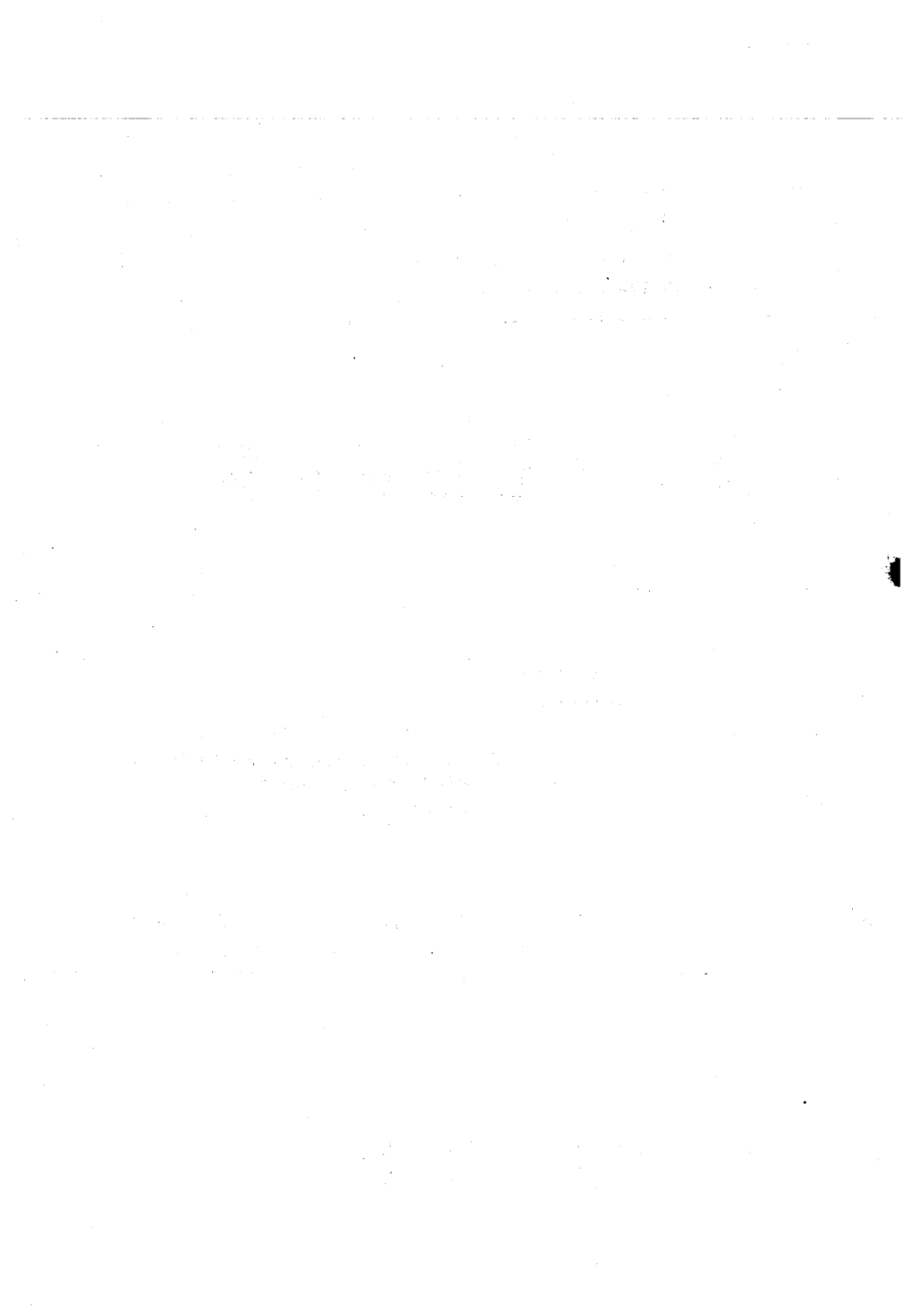
# 南北韓 價 值 觀 比 較

研究執筆責任 林 熿 燮

(略歷) 서울大學校 文理大 社學學科 및 同大學院卒業  
美國 "에머리"大學大學院卒 (社會學博士)  
高麗大學校 教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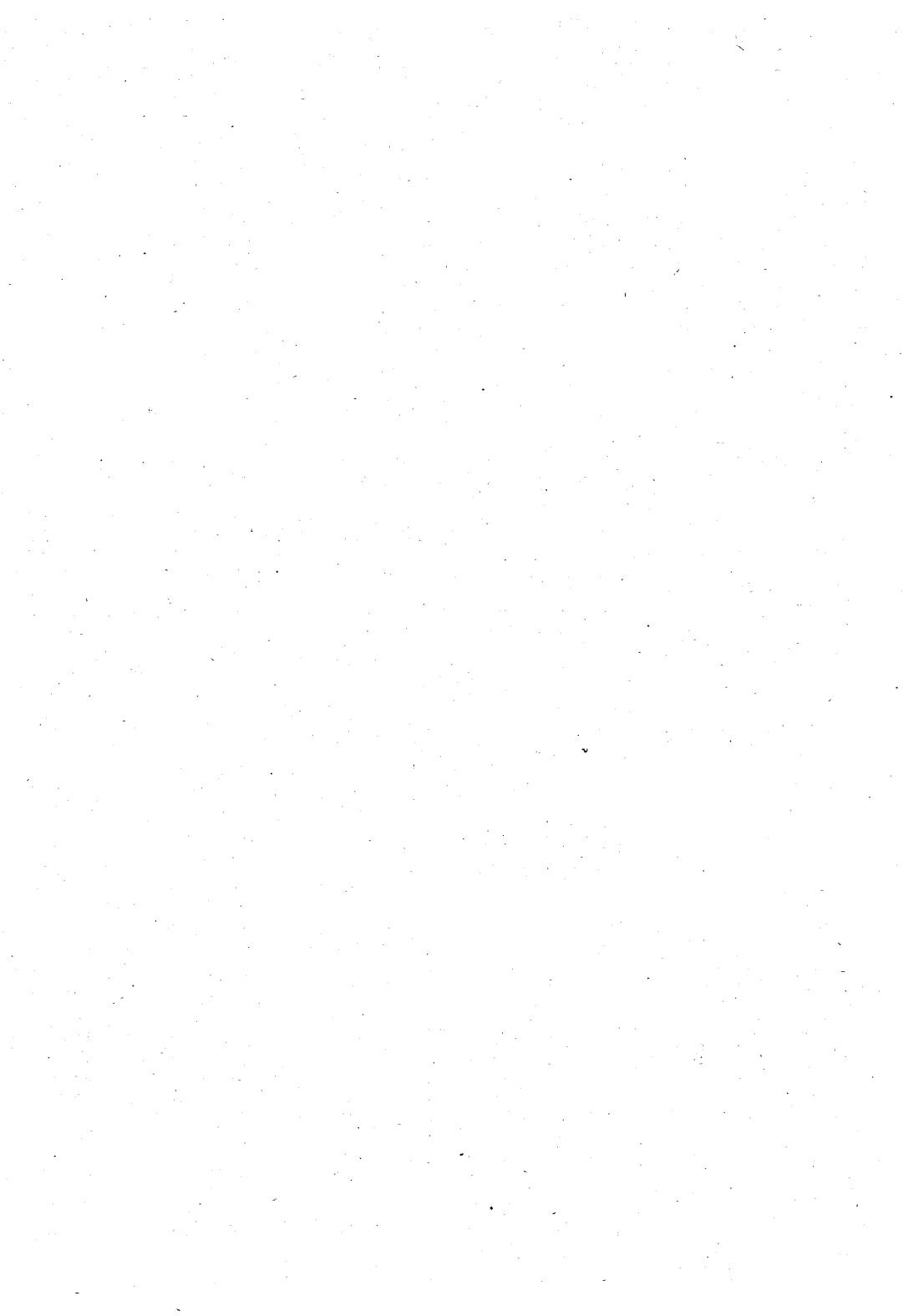
刊行責任 李 啓 熙 (調查研究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 目 次

第一章 序 論	3
第一節 研究的 目的	3
第二節 研究方法	5
第二章 教科書の 内容分析	9
第一節 人間観	9
第二節 歴史観	25
第三節 社会観	29
第四節 政治観	34
第五節 経済観	36
第六節 文化, 芸術, 宗教, 其他の 価値観	38
第三章 要約 及 結論	42
《 註 》	47



# 第一章 序 論

## 第一節 研究의 目的

이 研究의 目的은 現在 北韓에서 使用되고 있는 教科書의 內容을 分析하므로써 北韓의 教育이 注入하고자 하는 諸般 價值觀을 把握하고자 하는데 있다. 北韓 共産黨이 意圖하는 教育目標은 勿論 共産主義的 人間形成에 있다. 좀더 具體적으로 共産主義的 人間形成을 爲한 黨綱領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 (1) 共産主義 이데올로기로 武装된 투쟁정신의 함양
  - (2) 파벌의식, 지방의식, 가족의식을 불식하고 전체적 단결의식 강화
  - (3) 黨의 路線과 政策, 업적 등에 무조건 추종
  - (4) 政治的 知識과 勞動效能을 높이기 위한 教育
  - (5) 組織的 活動을 通한 黨의 同一視 강조
  - (6) 大衆과의 紐帶強化
  - (7) 共産黨의 倫理觀 確立: 個人에 관한 관심을 버리고 黨에 忠誠하고 전체를 위하는 정신
  - (8) 노동, 생산성의 向上
  - (9) 黨規則에의 順從
  - (10) 自我批判
  - (11) 정치적 경계심 등이다.
- 그러나 以上과 같은 黨綱領을 通해서 把握되는 共産主義的 人間

觀은 너무 莫然하고 体系的이 아니다. 따라서 本 研究로 實際 教科書의 內容을 分析하므로써 共產主義社會가 意圖하는 理想의 人間觀, 社會觀, 政治觀, 文化 藝術觀, 歷史觀, 教育觀, 宗教觀등을 各 價值次元別로 整理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分斷된 民族과 祖國이 언젠가는 統一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當爲 性을 前提로 할때 오늘날 南北韓國民들의 價值觀의 差異를 可能한 限 正確하게 判斷한다는 것은 매우 重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社會統合에 있어서 政治的, 이데올로기적 差異보다 더 重要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보다 深層에 있는 一般的 價值志向이기 때문이다.

價值志向은 클락혼(Kluckhohn)의 定義를 따른다면 「利用可能한 行動의 目標, 手段, 樣式의 選擇에 影響을 주는 個人이나 集團이 特異하게 所有하고 있는 所望對象에 對한 暗示的 또는 明示的 觀念」이다. ② 그러므로 價值志向은 「歷史의 特定時點에 있어서의 每個人 및 比較的 同質的인 每集團의 生活樣式 裏面에 있는 하나의 『哲學』」과 같은 것으로서 ③ 그에 따라 人間의 行動은 組織되고 意味가 賦與되는 것이다. ④

그러므로 價值觀의 研究는 特定한 集團이나 社會의 一般的 生活樣式과 그 裏面에 있는 意識構造를 밝혀주는 것이다. 따라서 本 研究가 試圖하는 北韓社會의 價值觀研究는 北韓社會를 正確하게 把握하는데 一助가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南北韓社會의 價值觀의 比較는 統一政策의 構想에 參考가 될 수 있을 것으로 確信한다.

勿論 한 社會의 價值觀의 研究는 教科書만을 資料로 해서 는

制限을 갖게 됨이 사실이다. 그러나 北韓社會의 研究는 實質的으로 文獻研究의 限界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現在의 實情이다. 그중에서 共產主義 理論이나 思想體系에 관한 研究는 東西洋에 걸쳐 광범하게 이루어졌으나 北韓은 다른 共產主義社會와 區別되는 特性을 가질 수 있으며 단순히 이데올로기의 分析만으로는 구체적인 價值志向의 內容을 파악한다는 것은 不可能한 일이다: 그렇게 본다면, 現在 分析이 可能한 資料가운데에서는 教科書의 內容分析이 가장 効果的인 價值觀研究의 接近方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本 研究는 以上과 같은 理論的, 實際的 근거에서 北韓의 教科書를 通하여 共產主義社會의 人間觀, 政治觀, 社會觀, 教育觀, 歷史觀, 宗教觀, 文化 藝術觀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 第二節 研 究 方 法

本 研究를 수행함에 있어 使用된 方法은 첫째로 文獻分析이며 둘째는 教科書分析이다.

文獻分析을 위해 使用된 資料는 國土統一院發行의 「北韓教育關係 資料集」(1973)과 「北韓의 教科書內容分析研究」(1972), 「北韓教科書에 反映된 歷史歪曲內容分析」; 「南北韓 教學教科書 比較分析」, 그리고 학우서방發行의 「조선 교육사」 등이다.

다음에 分析 對象이 된 教科書는 國土統一院이 保有하고 있는 朝總聯 教科書와 마이크로 필름에 収録된 것들로서 다음 表에 提示한 바와 같다. 그 중에서도 특히 本 分析이 重點을 둔

教科書들은 價值觀의 內容이 比較的 많이 담겨져 있는 國語나 歷史課目的 教科書이다.

<表 1> 分析된 教科書

분야	교과서명	수준	출판사	출판년도
국어	국어	오후야간상	학우서방	1968
	"	中	"	"
	"	下	"	"
	"	중급 1	"	1963
	"	중급 2	"	1965
	"	중급 3	"	1966
	"	고급 1	"	1967
	"	고급 2	"	"
	성인국어	상급용	"	1968
	국어	초급 3	"	1964
	"	" 4	"	1965
	"	" 5	"	1968
	"	" 6	"	1967
문학특본	중급 3	"	1961	
사회	지리	중급 3	학우서방	1969
	"	초급 5	"	1968
	조선역사	고급 1	"	1967



분야	교과서명	수준	출판사	출판년도
	조선역사	중급 2, 3	학우서방	1964
	"	중급 2	"	1968
	"	" 3	"	1969
	"	초급 5	"	1968
	"	초급 6	"	1967
자연과학	산수	초급 4	"	1968
	"	초급 5	"	"
	대수	중급 1	"	1965
	"	" 2	"	1968
	"	" 3	"	1964
	"	고급 2	"	"
	기하	고급 2	"	1966
	"	중급 1	"	1968
	물리	중급 3	"	1967
	"	고급 2, 3	"	"
	생물(상)	중급 1	"	1968
	"	고급 1	"	"
	자연	초급 5	"	"
	"	" 6	"	1967
	화학	고급 1	"	1968
	"	" 1	"	"

表 1에 提示한 바와 같이 本研究의 分析에 使用된 教科書는 國語分野에서 14種, 社會分野에서 地理 2種, 歷史 6種, 自然科學分野에서 16種, 總합 38種의 教科書이었다.

教科書의 內容을 嚴密하게 分析하기 위해서는 各 價值次元에 따라 量的인 內容分析 (Content analysis) 方法을 使用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지만 時間의 制約으로 本 研究에서는 各 價值次元과 要因에 따라 教科書의 內容을 整理하고 分類하여 記述하는 質的方法 (qualitative analysis)을 採하였다.

分析을 위해서 設定한 價值次元은 價值志向을 綜合的으로 볼 수 있는 人間觀을 비롯해서 社會觀, 歷史觀, 政治觀, 經濟觀, 文化 藝術觀, 教育觀, 宗教觀, 등 一般的 制度領域의 分類에 따라 設定하였고 各 價值次元內에서의 價值細目들은 教科書의 內容을 검토하는 過程에서 決定하였다.

## 第二章 教科書의 內容分析

앞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重要한 各 價值次元에 있어서의 價值 志向을 38種의 教科書 內容을 資料로 하여 分析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 第一節 人間觀

教科書에 나타난 바람직한 共產主義社會의 人間像은 첫째로 우상화되고 있는 金日成에 관한 描写, 우류, 朴趾源 등 歷史的 人物에 관한 叙述, 其他의 叙述內容에서 抽出할 수 있었는데 大體로 강조되고 있는 特性들은 (1) 人民愛 (2) 祖國愛 (3) 勞動愛 (4) 革命精神 (5) 社會主義社會 建設에의 獻身등이다. 그와 같은 細目에 따라 例文을 들어가면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1. 人民愛

理想的 人間의 特性의 하나로 人民的 特性이나 人民에 對한 愛憎등이 相當히 強調되고 있다. 例를 들어 歷史的 人物에 대한 描写를 보면 :

<우류에 관한 描写에서>

우류는 先輩들이 이룩해 놓은 이 훌륭한 음악유산을 깊이 연구하면서 한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어떻게 하면 人民의 感情에 맞는 악기를 만들 수 있을가에 대하여 오래 동안 생각하고 苦心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는 인민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며 무엇을 요구하며 어떤 것을 좋아하는가를 자세히 살폈다. 한편 온 나라 방방곡곡을 찾아 다니면서 인민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들과 대중이 사랑하는 악기들을 조사 연구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마침내 가야와 신라에 널리 퍼져 있는 《진한금》이라는 악기를 개조하여 가야금이라는 새 악기를 만들어 냈던 것이다. (국어 초급 6, p. 176, 点線은 筆者)

그리고 《朴 燕岩》에 관한 叙述에서도 보면 :

「선생은 이렇게 보통사람들과 친숙해졌으며 또 그들의 입을 통하여 세상 물정에도 차츰 눈을 뜨게 되었다. 당시 압박받는 사람들의 처지와 그들의 처참한 생활정경과 아울러 그들의 지향이 무엇인가함을 차차 알게 되었다.」 (문학독본 中 3년용, p. 10)

「박연암 선생은 초기작품에서부터 양반지배자들의 세계와 압박받는 농민들의 세계를 대립시키고 양반제도의 추악한 내면을 폭로할 뿐 아니라 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대변자로 출현하였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인민의 피땀을 빨아 먹을 것밖에 모르는 양반지주와 관료들을 서울 종로거리 앞에서 우글거리는 황충이 같은 자들이라고 바웃으면서 박연암 선생은 아무데도 쓸데 없는 그들을 속히 잡아 없애야 하겠다고 하였다.」 (문학독본, 中 3년용, p. 12)

또 《문 익점》에 관한 서술에서도,

「14세기에 문익점에 의하여 목화가 우리 나라에 들어오게 되어 인민들이 무명옷을 입게 되고 옷과 이부자리에 숨을

뵈게 된 것도 조선인민들의 생활발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고 하였다. (조선역사, 고급 1, p.85 ~ 86)

그리고 특히 우상화되고 있는 김일성의 인품과 행적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를 살펴 보는 것은 北韓社會의 理想的 人間像을 分析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重要하다. 왜냐하면 北韓教育의 重要的 目標의 하나는 \*김일성의 인품과 행동이 훌륭함을 인식시켜 존경심을 갖게 하고 그의 행동을 모방하게 \*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教科書內容가운데에서도

\* 학습반실에는 원수님의 초상화를 모셔놓고..... \* (국어, 초 3, p. 28 ~ 30)

\* 아침저녁 초상화를 우러리 보며 <서로 도와 배우며 조국의 꽃봉오리 되겠습니다> 항상 맘속으로 명세드리며 자나깨나 보고 싶은 원수님 \* (국어, 초 6, p. 84-86)

\* 나는 원수님을 뵈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때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 그날밤 너무도 기뻐서 울었습니다. \* (국어, 초 6, p. 99 - 96)

이상과 같은 句節들을 수없이 窺見할 수 있는데 이것은 金日成을 추종하고 모방하는 것을 통하여 共產主義의 人間形成을 試圖하려는 것이 중요한 교육목적의 하나임은 分明하다. 그와 같은 金日成의 人品과 行적이운데 人民性이나 人民愛에 관련된 점들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몇가지 例文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사령관도 인민의 아들이랍니다. 人民들이 다 하는 일을 내라고 어찌 못하겠습니까! 사람은 일을 해야 사는 재

미가 있고 밥맛도 더 좋습니다……》라고 원수님께서는 말씀하시었다. # (국어, 중 3, p.97)

# 집은 비록 가난하였으나 원수님으로 하여 온 집안은 언제나 웃음꽃이…… # (국어 초 3, p.7 ~ 12)

# 원수님은 우리나라 인민들을 다 잘살게 하셨다. # (오후야간, 국어, 上, p.61.)

# 농촌문화계몽사업을 위해 <진명학교>를 세워 혁명사상으로 교양교육하였다 # (국어, 고 1, p.1 ~ 14의 내용)

# 원수님은 온갖 위험과 곤란을 뚫고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찾기위해 혁명활동에 모든 것을 바쳤다 # (국어, 고 1, p. 1 ~ 14)

# 일제놈과 지주놈 때문에 원수님은 가난히 살았다. # (국어 초 4, p. 9 ~ 19)

# 일제 원수놈의 구박을 받아 그 전날엔 헐벗고 굶주리던 아버지 # (국어, 초 3, p. 21 ~ 24)

# 그러나 ……왜놈들에게 뜯기고 하여 삼지도 죽을 잡수셨읍니다. # (국어, 초 3, p. 7 ~ 12.)

以上과 같이 歷史的 人物이나 金日成에 對한 描寫나 叙述以外에, 歷史的 叙述에서도 人民性의 강조는 許多하게 發見 된다. 例를 들면,

# 이상과 같이 12세기 후반기 약 30년간 전국각지에서 험차게 일어난 인민들의 투쟁을 고려의 封建統治階級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이와 같은 투쟁은 우리 나라 인민들이 언

제나 부패 타락한 통치자들의 부당한 억압과 착취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곤란이 있어라도 일어나 용감하게 싸운다는 혁명적 기질을 보여주었다. # (조선역사, 고 1, p.72)

# 인민들의 이러한 힘은 그후 몽골침략자들을 반대하는 戰爭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밑천으로 되었다. # (조선역사, 고 1, p.72)

# 일본 侵略軍이 침입하자 各地方에서 인민들은 武器를 들고 일어나 싸웠다. …… 이와 같은 義兵部隊는 전국각지에서 일어났다 거기에는 농민, 노비, 군인, 지방량반. 할것없이 各界各層 사람들이 참가하였다. 仏敎의 승들도 무기를 들고 나섰다. 그중에서 가장 용감하게 싸운것은 노비를 비롯한 천민들과 賤民들이었다. # (조선역사, 고 1, p.116)

以上에서 보는 바와 같이 理想的인 人間像의 한 德目으로서 특히 人民性과 人民愛가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祖国愛

人民의 아들로서 人民을 사랑해야 한다는 德目과 더불어 크게 강조되고 있는 理想的인 共產主義的 人間의 한 特性은 祖国에 대한 사랑이다. 「祖国愛」의 德目を 더욱 細分한다면 (1) 民族과 祖国과 고유文化의 優秀性에 對한 強調, (2) 外國 侵略者와 帝國主義者에 對한 抵抗, (3) 主体思想등이다. 그와 같은 細目에 따라 教科書의 內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民族과 固有文化의 優秀性에 대한 強調

● 우리는 우리 말로 당당히 우리의 조국과 민족을 이야기하고 국가 정책과 우리 수령의 교시를 말하며 또 우리의 사상과 감정을 자유로이 표현할때 새삼스럽게 조선사람으로서의 뉘그러움과 의거함을 느끼게 된다. (국어, 중급 2, p.6)

● 우리 말은 또한 세계의 어느 문자보다도 과학적이며 독창적이며 인간적인 자기의 문자 한글을 가지고 있다. 우리 말은 또한 투쟁과 승리로 그 역사를 아로새긴 자랑을 가지고 있다. (국어, 중급 2, p.12)

● 이와 같이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우리 말은 8.15 해방후 공화국 북반부에서 당과 인민정권의 정확한 언어정책에 의하여 비로소 과거의 모든 장애를 깰부서 버리고 그 모든 우수성을 남김없이 되어나게 하였다. (국어, 중급 2, p.13)

● 우리는 조선말을 열렬히 사랑하며 조선말을 모국어로 가진 것을 더없는 자랑으로 여긴다. (국어, 중급 2, p.13)

● 자기의 언어를 사랑하는 마음은 곧 자기의 영광스러운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잇닿아 있다. (국어, 중급 2, p.21)

● 그 사람의 사상이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며 진보적이고 선진적인 것을 지향하며 고상한 도덕적 품성을 갖추고 있다면 그것은 곧 그의 글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국어, 중급 2, p.23)

● 이순신장군이 지으신 시조한수가 수세기를 내려오면서 많은



후대들을 애국주의 사상으로 교양주었다. # (국어, 중급 2, p.23)

# 우리 학생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께서 1930 년대에 원수들을 쳐 부시고 조국광복을 위하여 얼마나 간고한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또한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가에 대하여 쓴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수령을 따라 배우고 고상한 애국주의로 자신을 무장한다. # (국어, 중급 2, p.104)

# 나라가 없는 사람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제 나라가 있고 버젓이 조선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국어, 중급 1, p.11)

# 조국을 생각하여 어떠한 고난도 참아야 한다. # (오후야간, 下, p.91 ~ 101)

# 생명보다 인민과 조국이 더 귀중하다. # (국어, 중급 2, p.127 ~ 129)

# 당과 조국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깝지 않다. # (국어, 중급 2, p.208 ~ 219)

# 애국적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한 영웅건설자의 이야기 # (국어, 중급 2, p.249 ~ 263)

# 그는 조국을 자기의 목숨과 같이 사랑하였고 원수와의 싸움에서 용감대담했다. # (국어, 초급 4, p.141 ~ 148)

조국을 위하여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용감하게 싸우리라 마  
음먹었다. # (국어, 초급 5, p.74 ~ 77)

② 外國의 侵略과 帝國主義에 對한 抵抗

# 미제 침략자들은 1866년에 무장한 해적선 《사만호》를  
이끌고 無法하게 만경대 부근까지 기여들어와서 인민들의  
財産을 약탈하였다.

이에 격분한 이 고장 사람들은 한 사람같이 일어나 무장  
한 해적들을 보기 좋게 불태워 버리고 사랑하는 故鄕과 조국을 빛나  
게 지켜냈던 것이다. # (국어, 중급 1, p.18)

# 나는 미제 원수들의 어려운 발길에 짓밟히고 있는 남녘  
땅을 쏘아 본다. # (국어, 초급 6, p.90)

# 두발 가진 야수 미국놈들은 150명의 애국자들과 함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를 방공호에서 불태워 죽였다. # (국  
어, 초급 6, p.93)

# 억만갈래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미국 살인구들을 불  
태마다 나의 눈에서는 불이 인다. # (국어, 초급 6, p.94)

《당나라 침략자를 반대하는 人民들의 鬪爭》에 관하여:

# 고구려당조는 멸망하였지만 고구려인민들은 각지에서 계속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웠다. 백제의 領土에서도 침략자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항전이 계속되었다. 한편, 당나라의 힘  
을 이용하여 3국을 통일하려고 한 신라는 그들의 침략위  
협에 부딪치게 되자 당나라를 반대하여 나서게 되었다. 당  
나라침략자들은 도처에서 조선인민의 거세찬 항쟁에 부닥치

게 되었다. ....

당나라침략세력을 몰아내기 위하여 조선인민은 670년부터 약 7년간에 100 여차의 가열한 전투를 하였고 당나라군대가 백제를 침공하던 때로부터 계산한다면 근 20년간이나 줄기찬 투쟁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共同鬪爭을 통하여 3국의 인민들은 점차 융합되어 갔다. \* (조선역사, 고급 1, p.46 ~ 47)

《 993년 거란침략전쟁 》에 대하여 :

\* 이때에 정부에서는 거란이 강대하다는데 겁을 먹고 동요하는 자들도 있었으나 서희장군을 비롯한 애국적인 장군들은 《 군대가 많고 적은 것으로써 勝敗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인민을 團結시켜 단장하게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군대와 인민들을 抗戰에 動員하였다. \* (조선역사, 고급 1, p.63)

《 몽골 侵略戰爭 》에 대하여 :

\* 몽골침략군은 개성을 공격하면서 계속 南下하여 충주에 이르렀다. 그곳 兩班들과 官吏들은 겁을 먹고 도망하였다. 그러나 충주의 인민들은 끝까지 성을 지키며 몽골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이때에 지망수가 지휘하는 奴婢들과 천민들로 구성된 부대가 특히 영웅적으로 싸웠던 것이다. 각지 인민들의 이러한 항전에 부닥치게 되어 몽골군은 ... 하는수없이 고려政府와 《 화친 》 관제를 맺고 1232년 1월에 우리나라로부터 물러갔다. \* (조선역사, 고급 1, p.74)

《 임진전쟁 》에 관하여 :

그러나 人民들은 歎息하지 않았고 哀哭하지도 않았다. 各地에서 朝鮮사람들은 불타는 적개심을 안고 자기 郷土와 祖國에서 침략자를 몰아내기 위하여 勇敢하게 일떠섰다. (조선역사, 고급 1, p.114)

이와 같은 義兵部隊는 전국각지에서 일어났다. 거기에는 농민, 노비, 군인, 지방양반 할것없이 各界各層사람들이 참가하였다. 仏敎의 중들도 무기를 들고 나섰다. 그중에서 가장 용감하게 싸운 것은 노비를 비롯한 천민들과 농민들이었다. (조선역사, 고급 1, p.116)

### ③ 主体思想

위대한 主体思想은 사람들이 혁명과 건설을 책임지고 주인답게 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 (사회, 중급 3, p.12)

혁명과 건설은 사람들을 위한 사업이며 또한 그것은 사람들이 하며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 그러므로 사람들은 마땅히 혁명과 건설을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할 주인으로 된다. … 사람은 오직 혁명과 건설을 주인답게 해나갈때에만 진실로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될 수 있다. (사회, 중급 3, pp.13 ~ 14)

사람이 혁명과 건설을 주인답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주인으로서의 입장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만일 자기나라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으로서의 입장을 버리고 남이 이래라면 이려고 저래라면 저러는 식으로 한다면 당연히 남이 하는대로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 …… 사람이 혁

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입장을 철저히 지키려면 자기나라 혁명과 건설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들을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자기 결심에 따라 풀어 나가야 한다. ....

사람이 혁명과 건설을 주인답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다음으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 사람이 혁명과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높이려면 또한 모든 문제를 자기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 \* (사회, 중급 3, pp.14 ~ 18)

### 3. 勞 動 愛

지금까지 教科書의 內容에 나타난 理想의 人間像의 德目으로서 人民愛와 祖國愛를 살펴 보았다. 그와 같은 價值細目들과 함께 중요한 人間觀의 德目으로 指摘되고 있는 것은 勞動에 대한 愛惜과 勞動尊重思想이다. 이 德目は 人民愛의 項目과 重複된다고 볼 수 있으나 獨立된 別個의 項目으로 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勞動愛와 勞動思想과 관련된 教科書의 內容과 例文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젊은 시절의 박연암선생》에서

영인간은 본래 높으니 낮으니 하는 귀천의 차별이 있을리 없다. 구태여 사람들의 가치를 논하자면 사회와 국가에 피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 곧 직접 자기 손으로 물질을 생산하는 근로자들이 고귀한 사람이라고 선생은 주장하였다.  
(문학독본, 중 3. p.13)

《檀園(金弘道)》에 관하여 :

「단원이, 노동을 취급한 作品중의 하나로서 그림 《대장간》을 들 수 있다. 이 그림에는 몇사람이 제각각 많은 자기 일을 熱心히 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한 사람은 불에 달군 쇠 덩어리를 긴 집게로 잡고 두 사람은 메로써 그것을 번갈아 내리치고 있다. 집게를 잡은 사람의 꼭 다문 입, 메질을 하는 사람들의 힘찬 모습들과 숫돌에 낫을 가볍게 갈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림속에서 마치 움직이는 것 같다. 이 그림은 우리의 조상들이 노동을 얼마나 사랑하였으며 또한 단원 自身이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돌리었는가하는 것을 잘 말해 주고 있다. (국어, 초급 6, pp. 109 ~ 110)

「노동에 관한 속담은 아주 많다. 이것은 인민들 自身이 속담을 만들었고 그들 자신의 勞動體驗이 속담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을에는 손뼉 발뼉이 다 먹는다》 이것은 가을에 農事일이 바쁘기 때문에 밥도 많이 먹힌다는 것을 말한다. 《초사흘 달은 쟁 떠느리가 본다.》 《여름에 하루 놀면, 겨울에 열흘 굶는다.》 이것은 노동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국어, 중급 1, pp. 65 ~ 66)

「60이 넘은 할머니의 얼굴에 굵게 잡혔던 주름도, 금방 퍼지는 듯 웃음어린 얼굴은 환해 보였다. 고된 勞動에 뒹국혀진 손가락을 펴고 연신 팔을 늘리며 숨찬 줄도 모르고 춤추는 할머니는 20대의 青春과도 같았다. (국어,

중급 1., p. 119 )

『인류의 발생은 노동행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것이다. … 인류는 첫 사회는 공동적으로 노동하였다. 원시공동체제도는 인류의 첫 사회제도 … 무계급사회, … 착취도 몰랐으며… 인류역사는 무계급사회로부터 시작하였으며…』

이와 같이 일정한 분업에 의하여 모든 성원이 다같이 노동에 참가하였다. 그 누구도 놀고 먹는 사람은 있을 수 없었다.(역사 상, p.8-13)

『전체근로자들은 당의 부름에 따라 천리마를 타고 사회주의를 향하여 앞으로 달리고 있다.』 (국어, 교원대학, p. 28 ~ 31.)

### · 革命精神

理想的 人間觀의 비면제 德目은 투철한 革命精神의 所有이다. 앞에서 分析한 人民愛, 祖國愛, 勞働愛와 맞먹을 정도로 강조되고 있는 革命精神의 內容을 보면 金日成의 革命과 투쟁, 抗日팔지산들이나 인민유격대원들의 행적을 통하여 혁명정신을 고취하고 있다. 그 例文들을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강반석 어머니는 김일성 원수님이 어릴 때 부터 나라를 사랑하고 원수놈들을 미워하며, 끝까지 싸우도록 가르치셨다』  
(국어, 초급 5, p.47 ~ 51 )

『김일성 원수님이 우리나라를 왜놈들의 손에서 찾기 위해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하셨는지』 (국어, 중 2, p.22 ~ 26)

■ 김일성 원수는 19세대 조선혁명의 실현을 위해 투쟁.....  
김일성 원수님은 온갖 위험과 곤란을 뚫고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찾기위해 혁명활동에 모든 것을 바  
쳤다. ■ (국어, 고1, p.1 ~ 14)

■ 우리나라는 김일성 원수가 조직지도한 항일투쟁에서 승리한  
사회주의 나라... ■ (국어, 성인, p.11.)

■ 팔 하나 없는 몸이 앞으로 어찌 먹어가며 어찌 일할 짚  
하여 나가는나 말이다. ... 그러나 이 팔이 이 모양으로 될  
것이 오히려 나를 사회주의 혁명투사로 만든 것이 아닌가  
고 생각하며 전일보다 더 마음이 당당해질때도 많다. ■ (문  
학독본, 中3, pp.42 ~ 41)

■ 해방후·우리나라에서 일제는 꺼꾸러졌으나 그와 한쪽이었던  
친일파, 민족반역자, 예속자본가놈들은 그냥 남아 있었다. 따  
라서 이놈들을 철저히 때려 없어야 조선인민을 일제뿐 아니  
라 그 주구들의 착취와 압박에서까지 완전히 해방할 수 있  
었다. ....

원수님께서서는 해방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서 먼저 토지  
개혁을 실시하시여 우리나라 농민들을 지주의 착취와 압박에  
서 해방해 주셨다. ■ (사회, 중3, p.6.)

■ 혁명과 건설은 사람들을 위한 사업이다. 그것은 곧 사람  
들을 자연의 피해에서 벗어나게 하며 사회적으로 착취와 압  
박을 받지않고 보다 자유롭고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기 위  
한 사업이다. ■ (사회, 중3, p.12)



■ 압록강은 팔찌산들이 이강을 넘나들면서 일체를 족치던 강입니다. ■ (국어, 오후반 上, p.60 ~ 61.)

■ 소년 유격대원들은 김일성 원수님을 목숨으로 보위하기 위해 항상 혁명적 경자심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용감하였으며 지혜와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 (국어, 오후반, 中, pp. 78 ~ 80 )

■ 축구단의 체험은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체득하고 시합을 사상단련의 마당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 (국어, 중3, pp. 187 ~ 190.)

■ 원수의 가르침을 높이 받들고 팔찌산 대원의 혁명정신과 그 정렬은 훌륭한 결실을 보고 있다. ■ (국어, 고1, pp. 74 ~ 79.)

■ 항일 무장투쟁의 혁명전통을 계승해서 승리하자. ■ (국어, 고1, pp.142 ~ 163.)

■ 왔고나 왔고나 혁명이 왔고나 혁명의 기세는 전세계를 덮었다. (국어, 고2, pp.15 ~ 22.)

■ 전국 각지에서 혁명전통을 배우려고 모여드는 수천수만 사람들의 발길에 오솔길은 반반하게 다져져 있었다. ■ (국어, 초급5, pp.96 ~ 103.)

■ 목숨을 버려도 자유와 혁명은 버릴 수 없다. ■ (국어, 중3, p:155 ~ 167.)

## 5. 社會主義社會의 建設에의 献身

以上에서 教科書의 內容을 通해서 본 理想의 人間像의 特性으로서 人民愛, 祖國愛, 勞動愛, 革命精神을 들고 있음을 알아 보았다. 그에 附加하여 마지막으로 크게 강조되고 있는 價值德目은 『社會主義祖國建設에의 獻身의 자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項目도 앞에 든 네가지 項目과 마찬가지로 크게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強調되고 있는 社會主義祖國建設을 위한 努力을 말하고 있는 教科書의 例文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결코 사회주의 함락을 위하여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국을 사회주의 낙원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배웁니다.』 (국어, 중 2, pp.130 ~ 132)

『야영생활중에서 사회주의 건설사명감과 김일성 숭배사상을...』 (국어, 중 3, pp. 93 ~ 102.)

『조국의 영화는 사회주의 인간들의 생동하는 생활의 화폭이다.』 (국어, 중 3, pp.153 ~ 155.)

『우리의 피가 행복으로 꽃필 사회주의 낙원을 ...』 (국어, 중 3, pp.155 ~ 157.)

『우리는 우리가 올라선 사회주의 첫고지 부에서 자랑스럽게 말한다.』 (국어, 고 2, pp.18 ~ 22.)

『더 높여야 할 사회주의 건설의 풍선을 타고 ...』 (국어, 고 2, pp. 15 ~ 22.)

『나는 영웅나라 사회주의 조국이 아니면 이러한 큰 기쁨을 맛볼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국어, 존 3, pp. 141 ~ 145.)

以上에서 教科書의 內容分析을 通해서 살펴 본 北韓社會의 理想的 人間觀을 要約한다면 「人民의 아들로 태어나 人民을 사랑하고 조국과 민족의 우수성을 믿고 外敵의 侵略을 분쇄하던 民族의 정신을 이어 받아 主体的이고 祖國愛에 불타는 愛國精神을 가지며 勞動과 勞動者에 대한 愛情과 尊重心을 가지고 反帝, 反封建, 社會主義革命精神에 투철하고 社會主義祖國建設에 獻身하는 人間」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共產主義의 人間의 德目으로는 ① 人民愛, (2) 祖國愛, (3) 勞動愛, (4) 革命精神, (5) 社會主義思想등이라고 指摘할 수 있는 것이다.

## 第二節 歷史觀

以上에서 北韓共產主義社會의 人間觀을 살펴 보았거니와 다음에 그들의 歷史觀은 教科書의 內容分析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共產主義史觀은 唯物論의이며 階級鬭爭에 의한 弁証法的 革命史觀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社會는 經濟的 生産樣式에 의해서 그 構造가 決定되며, 生産手段을 所有하는 支配階級과 生産手段을 所有하지 않는 被支配階級으로 社會構造는 構成된다고 한다. 그리하여 被支配階級の 革命的 鬭爭을 통하여 歷史는 새로운 段階로 移行하며 궁극적으로는 階級없는 理想

사회인 社會主義社會가 完成된다는 것이 그들 史觀의 骨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史觀은 그들의 「조선역사」의 記述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이 本 教科書分析研究의 結果로 指摘되는 結論이다.

「조선역사」(고급 1)을 分析해 보면 우선 原始社會에서의 階級の 發生을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p. 12)

● 生産이 發達됨에 따라 축적을 하게 되고 서로 交易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 사이에는 財産의 差異가 커지게 되었다. 共同體의 土地도 점점 개인의 소유로 변하여 갔다. 共同體의 우두머리인 氏族長이나 種族長들 중에는 자기의 地位를 이용하여 共同體의 財産을 자기 개인의 소유로 만드는 자가 생겨났다. 그리고 그들은 種族內部的 다른 家族들을 착취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高利貸를 주어서 債務奴隸로 만들거나 또는 자기의 재판권을 악용하여 형벌노예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다른 種族들과의 충돌에서 빼앗아온 재산을 자기가 독차지하고 붙들어온 포로들을 자기의 노예로 만들었다. 社會는 奴隸와 노예를 부려먹는 노예소유자의 적대되는 두 階級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하여 原始共同體는 점점 무너지게 되고 階級社會로 되었다. ● (조선역사, 고급 1, p. 12.)

이어서 우리나라의 古朝鮮, 扶余, 진국 등은 「奴隸所有者國家」라고 부르고 奴隸所有者階級은 國家統治機構와 <법금 8 조>와 같은 法을 만들어 ● 노예와 농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하고 억압하였다 ● 고 記述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노예와 농민대중들은 漢나라의 침략과

노예 소유자계급에 대한 鬭爭을 벌이고, 한편으로 生産력의 급속한 成長에 따라 노예 소유자 사회의 사회경제적 모순이 장성되어 갔다 〓고 記述하고 있는 것이다.

〓古代 노예 소유 국가들인 고조선, 부여, 진국 등에서는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세력들이 장성하게 되었다. 各地方들에서는 國家와 귀족들의 착취 때문에 매우 가난한 농민들이 계속 생겨났다. 그러나 한편 생산도구가 발달하고 농사짓는 법도 전보다 발달하였으므로 농민들은 전보다 더 많은 것을 생산하게 되었다. 地方의 귀족들중에는 가난한 농민들을 노예로 만들지 않고 따로 자기 집에서 농사를 짓도록 하면서 착취하는 자들이 생겨났다. 그편이 그들에게 더욱 유리하였기 때문이었다. …… 노예로 만들지 않고 일정한 土地를 주고 가족들과 함께 농사를 짓게 하고 그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全部를 떼앗지 않고 一部만을 착취하면 그들은 자신의 생활형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며 더 많은 것을 생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농민들은 여전히 압박과 착취를 받았고 때로는 귀족들을 위하여 강제노동도 하였지만 노예보다는 자유로웠고 어느 정도의 權利도 인정받았다.

노예들의 반항과 투쟁에 의하여 이러한 封建關係가 형성될 수 있었다 〓 (조선역사, 고급 1, pp.26 ~ 27)

그렇게 하여 高句麗, 新羅, 百濟 등의 封建國家가 形成되었고 그와 같은 封建社會는 高麗를 거쳐 李朝에까지 계속되며 그 동안에도 勿論 〓全國 各地에서 일어난 인민들의 鬭爭은 封建統治階級

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 記述되고 있다. 그리하여 封建社會는 18 ~ 9世紀에 걸쳐 分解되어 갔다고 한다.

# ( 商業이 發達한 結果 ) 前에는 兩班들만이 土地를 차지할 수 있었으나 이제와서는 양반들이 아니고 身分이 淸한 사람이라도 돈만 있으면 토지를 사서 농민들에게 농사를 시켜 小作料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장사를 하여 돈을 모은 사람은 土地를 사서 地主가 될 수 있었다. .... 농민들은 양반관리들뿐만 아니라 地主들에게도 착취당하였다. 地主와 小作農민의 관계는 그전과 같이 兩班과 常民과의 신분적인 차별과 예속이 회미해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地主는 동시에 兩班이기도 하였으므로 전반적으로는 아직 封建的인 신분 예속관계가 많이 남아 있었다. #

( 朝鮮역사, 고금 1, p. 129 ~ 130 )

또 한편으로는 이 무렵에 賃金勞働이 發生하였다고 記述하고 있다.

# 돈을 많이 가진 상인들이 고향에서 못살게 되어 각지로 떠돌아 다니는 농민들을 고용하여 새로운 돈벌이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다.

金이나 銀을 캐는 광산들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그것은 民間에게는 잘 허락하지 않았고 .... 그런데 이 시기에와서는 부자들이 官衙들에게 뇌물을 주고 몰래 鎭山을 경영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그러한 鎭山들에서는 많은 노동자들이 賃金を 받고 노동을 하였다. # ( 朝鮮역사, 고금 1, p. 130. )

• 경제가 변하고 사람들의 관계가 변하여감에 따라서 이조 封建社會의 신분관계도 무너져 갔다. 1801년에 정부가 노예 문서를 불살라버리고 노비들을 <해방>하여 농민과 같이 대우한다고 발표하게 된 것도 그러한 變化를 말하는 것이다. (조선역사, 고급 1, pp. 130 ~ 131.)

그와 같이 차 分解되어가던 封建社會는 日帝의 侵略을 받았고, 日帝와 美帝에 對한 人民의 抗爭을 通하여 社會主義社會가 建設되고 있는 것으로 「조선역사」는 記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歷史敎科書에 나타나는 北韓의 歷史觀은 唯物史觀, 階級鬭爭史觀이 그대로 反映되고 있는 것이라고 結論지을 수 있는 것이다.

### 第三節 社會觀

北韓敎科書에 비친 社會觀은 어떠한 것인가? 社會觀에 있어서 두드러지는 要因은 첫째로 階級觀이며 둘째는 集合主義的 社會觀이라고 보여진다. 共產主義者들은 社會主義以前段階의 모든 社會를 支配-被支配의 階級社會로 보며 두 계급의 관계는 敵對的인 착취와 抗爭의 관계로 보는 것이다.

古代社會를 奴隸所有者階級과 奴隸階級으로 나누어진 社會로 보았고, 封建社會는 封建的 地主(兩班)階級과 農民階級이 区分된 社會로 보았으며 資本主義社會는 資本家와 勞動者로 對立되는 社會로 보았음은 歷史觀에서도 이미 言及하였다. 그러나 歷史以外的 다른 교과서에서도 階級的 社會觀에 관한 句節과 要因은 敍없이 발견된

다. 그 例文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옛날에 만들어진 속담에는 낡은 사회의 모순을 보여주는 것이 많다. 예를 들면 封建時代의 양반계급을 증오하며 人民의 희망을 반영하는 것, 日帝통치시기에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을 증오하며 조선인민의 해방을 염원하는 것이 있다.

《내 배 부르면 종의 배 고프술 모른다》

《대신덕 송아지 백정 무서운술 모른다》

《사흘 굶은 범이 원님을 안다더냐》

이것들은 모두 봉건사회와 계급적 對立關係를 보여주는 것이며 人民들의 偉力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어, 중 1, pp. 64 ~ 65.)

「속담이 人民들의 구두 창작이기 때문에 恆時 人民생활과 그의 志向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계급적 관계, 또는 民族的關係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관계나 가정문제, 특히는 억눌려 있는 女性들의 처지를 반영하는 것도 볼 수 있다.」 (국어, 중 1, p. 65.)

《박연폭포》에 관한 글에서 :

「근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상는 것 조차 귀찮게 여겨졌던 그 옛날, 박연은 이처럼 슬기롭고 희망에 찬 人民들을 맞아 들이지 못하고 한 날 支配階級의 늑대로 짓밟히어 그 빛을 잃었다. 허나 오늘의 박연은 아름답고 雄壯하게 꾸려졌고 한 그루의 나무 두리에도 보호책을 돌려주는 근로자들의 극진한 보호속에서 승벽으로 자라가고 있다.」

(국어, 중 1, p. 147.)



한편 그들이 美帝國主義者들과 그 피뢰들이 支配하고 있다고 하는 南朝鮮社會는 어떻게 記述되고 있는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美帝는 남조선의 권리를 틀어쥐고 아시아를 침략하기 위한 발판으로 ... (국어, 초급 6, p.117 ~ 120)

●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늘어가는 군사비를 마련하고자 남조선 인민들을 착취, 죽도록 일하고도 임금도 제대로 못받는다...

● 농민들에게 땅을 준다고 농지개혁을 하고서도 땅을 지주들에게 다 돌아감 ● 학교가 돈벌이의 곳으로 되어 있는 남조선에서는 학생들은 배움의 길을 잃고 피뢰군대에 끌려가 미제피뢰의 밥이 되고 있다.

● 수십만의 거지들이 길을 해냄

● 남조선은 살아갈 길이 캄캄하여 제 목숨을 제손으로 끊는 일이, 피를 파는 일, 눈알마저 파는 일이 있다.

● 피뢰정부는 인민을 외국에 팔아넘겨 이민이라는 용서 못할 나쁜짓까지 한다.

● 탄압에 못이겨 인민들의 불만은 인민봉기로 나타났다.

(이상은 모두 국어, 초급 6, pp.117 ~ 120에서)

南朝鮮과는 反對로 北韓社會主義社會는 理想的이고 살기좋은 社會로 描写하고 있다.

● 우리 조국 어린이들은 길에 따라 새옷을 사입고 교과서 학용품을 받는다. ● 도서관, 실험실, 연구실, 악기등이 설비, 여름이던 석양야영소, 송도원 야영소등의 야영소가 마련되어 있고

● 평양 개상에는 학생소년 궁전이 건설되고...

「우리 조국은 ... 자유롭고 참다운 인민의 나라이며」

「우리 조국 북반부 인민들은 모두 다 행복하게 사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 몸과 마음을 바쳐 일하고 있다.」

「공장마다 기계소리가 요란하고 굴뚝마다 연기가 하늘높이 솟아 오른다.」

(以上 국어, 초급 5. pp.5 ~ 6.)

「참으로 오늘의 창성은 이 고장 사람들이 오랜 세월 꿈꾸어 오던 그대로 全体住民이 기와집에서 비단옷을 입고, 이 밤에 고기국을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地上樂園으로 되었읍니다. (국어, 초 6, p.36.)」

「재벌아!

조국에 와 보니 모든 사람들이 활기가 있고 명랑하다. 참말 일본에서는 상상조차 못하던 꿈나라에 온 것만 같다. 여기에는 놀고 있는 사람이나 실업자란 한 사람도 없다. 모두 자기의 능력대로 국가를 위하여 보람차게 일하고 있다.

(국어, 초급 6, p.40)

「결과 우리나라는 착취와 압박이 完全히 없어진 세계에서 제일 으뜸가는 사회주의나라로 되었다. ... 오늘 착취와 압박에서 영원히 해방된 우리 조국의 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의 따뜻한 품속에서 자기들이 주인으로 되고 있는 공장과 협동농장, 생산협동조합에서 서로 돕고 이끌며 다같이 즐겁게 일하고 있으며 세상에 부림없이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을 마음껏 꽃피워나가고 있다. (사회-죽 3, pp.

10 ~ 11)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共產主義社會의 社會觀은 우선 社會主義社會가 아닌 모든 다른 社會는 支配階級이 被支配階級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社會이며, 그와 반대로 社會主義社會는 착취와 억압이 없고 모두가 잘 사는 地上樂園이고 理想社會로서 敘述되고 있다.

한편 個人과 集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언제나 個人보다는 集團과 全體를 優先으로 하는 集合主義( collectivism )의 價值觀을 강조하고 있다. 몇가지 例文을 들어 보련 :

「 자기보다 동무와 집단을 사랑하는 것이 앞서고... 」 ( 국어, 중 2, pp.22 ~ 26 )

「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 ( 국어, 오후반, 하, pp.63 ~ 67 )

「 개개의 꽃다발이 뭉치고 전체가 하나의 꽃동산을 이룬다 」 ( 국어, 중 3, pp.153 ~ 155 )

「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들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전체인민들이 하나로 굳게 뭉치게 된다. 그러나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졌다고해서 인민들이 저절로 한 덩어리처럼 굳게 뭉쳐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직 수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수령의 두리에 전체인민이 굳게 결속될 때에만 확고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인민대중이 하나로 뭉쳐지려면 하나의 사상으로 무장되고 하나의 중심에 결합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자기의 사상에 따라 서로 다르게

행동한다. 따라서 사람들이 하나의 사상이 아니라 이리저리  
한 사상을 가지게 되면 그에 따라 제각기 행동하게 됨으로  
써 하나로 뭉쳐질 수 없다. # (사회, 중급 3, pp.28~30)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두리에 전체인민이 하나로  
굳게 뭉친 이 위대한 단결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써도  
타물수 없는 가장 공고하고 확고한 통일단결이며 어떠한 곤  
란과 애로도 뚫고 항상 승리를 이룩할 수 있게 하는 거대  
한 힘이다. (사회, 중 3, pp. 29 ~ 30)

#### 第四節 政 治 觀

共產主義社會理論은 勿論 唯物論에 근거하고 있으며 맑스主義는  
經濟決定論 (economic determinism) 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그러  
나 實際 共產主義社會體制의 運營은 經濟보다는 政治가 優先하고  
있으며 모든 다른 制度的 機能은 政治에 從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教科書의 內容分析을 통해서 보더라도 階級鬭爭, 革命思想, 社會主  
義思想의 注入을 비롯하여 政治적 志向이 強力히 要求되고 있다.

가령 몇가지 例文을 들어보면 :

사람은 누구나 다 부모로부터 육체적생명을 받아가지고 세  
상에 태어난다. 그러나 정치적생명만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  
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생명은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혁명조직에 들어서 사회정치활동, 혁명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지니게 되는 생명이다. # (사회, 중급 3, p. 82)

그러므로 위에 인용한 金日成의 말에 의한다면 共產主義社會에서  
의 「政治活動」이란 「革命組織에 들어서 革命鬭爭을 하는 것」의  
意味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재일 조선소년단원들이 지니고 있는 정치적 생명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아들 딸로서의 생명이다. 육  
체적생명은 부모가 주지만 정치적생명은 수령님께서 주시고  
키워 주신다. …… 바로 우리들이 지니고 있는 정치적 생  
명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안겨주신 것으로 하  
여 이 세계에서 가장 고귀하고 값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이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빛내어 나  
간다는 것은 원수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  
며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으로 받들고 끝까지 실천함으  
로써 일련단심 원수님께 충성한다는 것을 말한다. # (사회,  
중 3, pp.82 ~ 3)

「사람들이 혁명도 모르고 조국과 인민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저 밥이나 먹고 하루하루 세월이나 보내  
는 식으로 살아서는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없으며 참된 삶  
의 보람도 없다. 이러한 사람들은 짐승과 다름없으며 비  
록 목숨은 붙어 있어도 죽은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 사  
람은 하루를 살아도, 평생을 살아도 정치적 생명을 가지고  
사회실천활동, 혁명투쟁을 해야 사람으로써 가치가 있고 참  
된 삶의 보람이 있다. # (사회, 중 3, pp.83 ~ 84)

「소년 단원들은 사회정치활동을 잘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소년단원들은 <굴뚝주>가 될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사

회정치활동에 적극 참가하여 능력있는 정치활동가로 자라나야 합니다. 〃

〃우리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앞으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훌륭히 일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갖추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자면 우리들이 학교시절에 아무것도 하지않고 그저 책만 들여다보고 글만 외우는 <글뒤주>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사람은 설사 지식이 있어도 앞으로 그것을 써먹을줄 모르게 됴으로써 아무 쓸모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 (사회, 중 3, p.85)

그러므로 정치활동을 위해서 보는바와 같이 革命活動과 김일성의 忠誠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어려서부터 그와 같은 政治活動은 積極 권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政治活動은 社會主義思想을 前提로 하여 組織活動을 通하여 이루어지는 劃一的인 同潤的 活動인 것이다.

### 第五節 經 濟 觀

共產主義社會의 政治觀이 社會主義革命活動과 金日成의 忠誠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經濟觀은 社會主義經濟建設을 위한 勞動의 參與로 규정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최근의 千里馬運動과 청산리方法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하는 것이 北韓社會에서의 經濟活動인 것이다. 몇가지 例文을 들어보면 :

〃천리마로 달려가는 우리네 부모형제 ... 〃 (국어, 오후반, 중, pp.56 ~ 57.)

● 칠리마기수들은 말은 일을 넘쳐 한다. ● (국어, 오후반,  
하, pp.28 ~ 29 )

● 칠라마,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와 칠리마  
운동은 사회주의혁명이 결정적으로 승리한, 인민경제의 자립  
적 토대가 축성된 개조우에서 일어난 합법칙적 현상이며... ●  
(국어, 교대, pp.28 ~ 31 )

● 하나도 아닌 수천만의 오늘의 칠리마가 지금 배움을 건  
너앉고 태달린다. ● (국어, 교대, pp.28 ~ 31 )

● 전체 근로자들은 당의 부름에 따라 칠리마를 타고 사회  
주의를 향하여 앞으로 달리고 있다. ● (국어, 교대, pp.  
28 ~ 31 )

● 칠리마 작업반운동은 근로자들의 노동과 생활에서 일대전  
변을 일으키는 새로운 집단적 혁신운동이며... 칠리마 작업  
반 운동의 거대한 의의는 그것이 인민경제를 급속히 발전  
시키는 강력한 추동력이며 자각된 근로자들의 대중적 경제  
운영의 훌륭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 (국어, 교대, pp.  
39 ~ 44 )

● 김일성원수는 靑山里지도를 통하여 상급기관 일·군들이  
하부기관 일·군들의 사업을 직접 도와주며 모든 지도 일  
군들이 생산현장과 군중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 그들을 교  
양하고 활동하는 새로운 사업체제로 개편하였다. ...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우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사업체제를 확  
립할데 대한 靑山里精神, 靑山里方法을 당, 국가, 경제기관들

의 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다. … 靑山里  
方法은 군중을 믿고 그들과 상론하며 (그들에게 党的 의도  
를 알려주며 당정책을 관철하도록 대중의 발동시키는 朝鮮  
勞動党的 群衆路線과 事業方法의 새로운 모범이다. # (조선  
역사, 중급 2, 3 학년용, pp.271 ~ 272 )

# 평등 농장에서는 《농장 일이자 내일》이라는 아름다운  
기풍이 조성되었으며 저마다 힘든 일에 앞장서며 남 몰래  
좋은 일 하기를 경쟁하는등 千里馬시대의 새로운 道德的  
풍모가 전면적으로 개화되어 갔다. # (조선역사, 중급 2, 3  
학년, p.272 )

그러므로 위의 例文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北韓社會의 經  
濟的 価値觀은 党和 首領의 指示와 路線에 따라 協同農場이나 工  
場에서 千里馬運動이나 靑山里方法에 의해서 最大限 動員되어 生産  
에 全力을 기울이는 活動을 새로운 道德的 氣風으로 尊重하고 있  
는 것이다.

#### 第六節 文化, 藝術, 宗教, 其他의 價值觀

共產主義社會에서는 文學, 藝術, 宗教法등의 모든 制度的 기능들은  
社會主義的 政治와 經濟를 爲한 手段에 不過하며, 그와같은 目的에  
違背되는 內容은 철저히 排除되고 容認되지 않는다. 그와같은  
事實이 教科書分析에서도 充分히 立証되고 있다. 예를 들어 문학  
과 예술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 조선 문학 예술에 대한 조선 노동당의 정책은 《문화와 예술은 인민을 위한 것으로 되어야 한다》를 비롯한 김일성 원수의 제반 교시들에서 구체화되었다. 조선노동당의 文藝政策은 우리 인민의 유구한 문화유산을 계승하며, 외국의 선진문화의 성과를 섭취하면서 인민 민주주의제도하에서 우리 인민의 생활과 감정을 반영하는 새로운 民族文化를 발전시키는데 있었다. ...

또한 조선 노동당은 문학과 예술분야에서 부르주아 반동 사상의 온갖 표현과 외부로부터의 그의 침습을 반대하여 결정적으로 투쟁하였으며 철저히 근로인민에게 복무하는 혁명적인 문학과 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

(조선역사, 중급, 2, 3학년용, p.187)

言論에 관련된 叙述을 引用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신문의 사명은 발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 달라진다. 침략을 일삼는 제국주의자들의 신문은 제국주의자들의 전쟁소동과 침략음모를 정당화하고 사회주의 나라들을 반대하며 자기나라 인민들의 진보적인 운동을 탄압하는데 많은 지면을 들린다.

그러나 인류를 온갖 억압과 착취와 불행에서 해방하려는 위대한 혁명사상을 가진 노동계급에 의하여 발행되는 신문들은 낡은 사회제도의 모순과 제국주의자들의 음모를 폭로하면서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들을 해방을 위한 투쟁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 (국어, 중급 2, pp.68 ~ 69)

「그러나 자본주의 나라 신문은 신문들을 팔아 먹는데 눈이 어두워서 청년들의 교양을 알중에 두지 않는다. 그리하여 온갖 비도덕적이고 타락한 양품을 선전한다. 이런 신문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헛신처럼 내던진 파렴치한 인간들에 대한 무분별한 소개를 즐겨한다.」(국어, 중급 2, pp.69~70)

「지도기사(指導記事)는 사회주의 신문에서 독자적인 자리를 차지한다. 지도기사는 근로자들이 거둔 성과, 경험 및 방법을 보급 선전함으로써 일군들을 지도 방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국어, 중급 2, p.71)

그밖에도 우리의 過去文化에 대한 記述에서도 政治的 解釋의 빛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들어 古代文化를 이야기하는 가운데에서 :

고조선의 려옥이라고 하는 배사공의 안해가 지은 《공수의 노래》는 詩로서 훌륭한 형식을 갖추고 있을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고상한 人道主義사상이 담겨 있었다. 한 배사공의 안해가 그와같이 훌륭한 곡을 붙여 노래불렀다는 사실은 당시 人民들이 文學과 音樂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조선역사, 중급 2, 3년용, p. 23)

그러나 社會主義社會가 아닌 社會에 있어서의 法律이나 宗教들은 많은 非難의 대상이 되고 있을 수 있다. 즉 그와같은 法이나 宗教는 統治階級이 人民을 착취하고 抑壓하기 위한 道具로 사용되었다고 批判하고 있는 것이다. 몇가지 例文을 보면 :

● 노예주인 지배계급은 이러한 착취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 벌금 8 조 > 라는 法律을 만들었고 군대와 감옥을 만들었다.  
( 조선역사, 중급 2, 3 년용, pp. 15 ~ 16 )

● 이러한 착취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扶余에는 엄격한 法律이 있었고 노예와 下戶들의 반항을 진압하기 위한 국가기구들이 있었다. # ( 조선역사, 중급 2, 3 년용, p. 19 )

● 그러나 본래 儒敎와 仏敎의 思想은 인민들에게 봉건통치 제도를 좋은 것으로 선전하고 통치자들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었으므로 지배계급에게 유리하였고 근로인민들에게는 해로운 것이었다. # ( 조선역사, 중급 2, 3 년용, p. 41 )

### 第三章 要約 및 結論

以上에서 北韓에서 使用되고 있는 38種의 教科書의 內容을 分析해 보았거니와 그와같은 分析의 結果 北韓社會의 價值觀은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다. 그리고 同時에 北韓社會의 價值觀을 南韓의 價值觀과 比較하면서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 I. 人間觀

北 韓	南 韓
1. 人民愛, 人民性	1. 祖國愛, 主體性
2. 祖國愛, 主體性	2. 個性, 創意性, 多元性
3. 勞動愛	3. 協同性
4. 革命性	4. 民主性 (權利, 義務意識)
5. 社會主義思想	5. 自由民主主義思想

#### II. 歷史觀

北 韓	南 韓
1. 唯物論	1. 科學的 多元論
2. 階級鬭爭	2. 發展論
3. 社會主義理想社會建設	3. 近代化論

### Ⅲ. 社会 觀

北 韓	南 韓
1. 前社会主义社会는 階級社会 2. 資本主義社会의 內的矛盾 3. 社会主义社会는 理想社会 4. 集合主義 (Collectivism) 全体가 個人에 優先함	1. 機能的 分化를  통한 社会 發展過程에서 歷史的時期的 社会를 파악 2. 個人과 全体의 調和

### Ⅳ. 政治 觀

北 韓	南 韓
1. 政治가 支配的인 制度 2. 黨과 首領의 指導力을 강조 3. 動員体制 (mobilization)	1. 政治와 其他制度의 相對的 自律性 2. Leadership 보다는 合意 (Consensus) 를 강조 3. 調整体制 (Reconciliation)

## V. 經濟觀

北 韓	南 韓
1. 社會主義人民經濟 2. 集團的 動員體系	1. 自由 경쟁 資本主義經濟 2. 경제적 合理的 管理体系

## VI. 文化, 藝術, 法, 宗教觀

北 韓	南 韓
1. 文化, 藝術法, 宗教 등은 非 社會主義社會에서는 支配階級 의 억압과 착취手段 2. 社會主義社會에서는 社會 主義完成을 위한 手段	1. 文化, 藝術, 法, 宗教 등의 固有한 價値와 기능 및 自律 性을 인정하고 尊重함.

그러므로 北韓社會主義社會의 敎育은 革命精神과 金日成에 對한 忠誠心, 그리고 社會主義思想으로 武装된 集合主義의 이고 同調的인 人間을 形成하는데 意圖的인 努力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와같은 그들의 敎育目標나 敎育綱領은 金日成의 演說文에도 나타나고 있다. 1958年 11月 20日 共産黨간부회의에서 행한 그의 연설에서 그는 여섯개의 敎育目標를 다음과 같이 提示하고 있다.<sup>⑤</sup>

(1) 共産主義에 대한 愛着心敎養

- (2) 親進歩, 反保守教養
- (3) 集團主義教養
- (4) 社會主義的 愛國主義教養
- (5) 勞動精神教養
- (6) 革命思想教養

그리고 그와같은 教育目標을 구현하는 教育의 實際는 다음과 같이 要約되고 있다. ⑥

첫째로, 맑스, 레닌주의의 사상으로 무장된 人間, 둘째로 多方面的으로 발전된 새로운 형의 人間(사실에 있어서는 共產主義社會建設에 必要한 知識, 技術, 行動을 갖춘 人間), 셋째로 北韓共産黨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며, 당이 말하는 대로 말하며, 당이 행하는 대로 행동하는 人間을 형성하기 위하여 모든 教育活動이 수행된다 는 것이다.

한편 北韓의 教育은 全體人民의 勞動力化에도 心血을 기울이는 빛이 역역하다. 가령 1956年의 당중앙위원회 상부위원회의 결정을 보면 보통교육부문학교에서도 기본생산기술교육을 실시하려는 결정이 제기되고 있다.

「기술인재가 노는 역할을 옳게 인식하고 각종 기술전문학교와 대학들에 대한 지도를 개선해서 학교교육이 생산적 실제와 옳게 결합되도록 할 것인 바 보습반 사업을 강화하고 생산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

보통교육부문(사범전문학교 포함) 과정안, 교수요강, 교과서들을 1960년까지, 기본적으로 제작 完了할 것이며...」(조

선교육사, 東京, 學友서방, 1963, p.219 )

그러므로 北韓의 교육은 특히 政治 및 經濟와의 밀접한 연관속에서 政治 및 經濟를 위한 手段性이 강조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결국 北韓의 교육은 政治的, 經濟的으로 動員되고 利用되기에 容易한 革命思想과 勞働精神, 그리고 集合主義의이고 同調的인 價値觀을 內面化하는 人間을 養成하는데 그 目的과 機能에 있는 것이라고 結論지을 수 있는 것이 거기에 비하여 南韓의 教育은 創意的이고 個性이 強한 合理的 個人을 形成하는 한편 權利 義務意識과 自發的 協同精神을 갖춘 自由民主主義社會의 市民으로서의 個人을 形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면 南北韓의 價値觀의 差異는 現在로서는 顯隔한 差異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특히 北韓 교육이 안고 있는 虛構成<sup>가</sup> 金日成의 偶像化와 南韓 및 自由世界에 對한 虛偽宣傳이 北韓學生과 국민들에게 탄로날때 北韓教育이 意圖했던 社會主義的 價値觀은 그 基盤이 오래 지탱되기 어려운 것임을 또한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北韓의 價値志向을 變化시키고 궁극적으로 意識의 統合을 志向할 때에는 무엇보다 北韓教育目標과 理念이 가지고 있는 虛構成이 北韓住民들에게 認識되도록 하는 것이 北韓住民들에게 認識되도록 하는 것이 捷徑일 것이라고 보여진다. 끝으로 本 研究는 北韓教科書에 對한 보다 詳정한 量的 分析을 위한 하나의 予備的 研究로서 基礎的인 分析에 그쳤음을 밝 혀둔다.



◀ 註 ▶

- ① 北韓斗 教科書內容分析研究, 國土統一院, 1972,p.23.
- ② Clyde Kluckhohn & Orhers, "Values and Value Orientins in the Theory of Action," in T Parsons, E. Shils, et. al.,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1951, p.395.
- ③ Ibid., pp.409-410.
- ④ 洪承稷, 韓國人斗 價值觀研究, 高大 亞細亞問題研究所, 1971, p.13.
- ⑤ 金日成選集, 6卷, 朝鮮勞動黨, 1966, pp.131 ~ 138.
- ⑥ 北韓總誌 1945 ~ 1968, 共產主義問題研究所, Vol. II., 1968, pp. 596 ~ 692.

